

# 불자들이 힘 모아 '지역사회를 정토'로

##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 창립

### 환경운동, 불교 자정·개혁 사업 펼칠 계획 6개분과 신설, 문화 네트워크 형성 교육

불교이념에 기반한 민족통일, 평화, 인권, 정의실현을 통해 지역 구심체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불교단체가 광주에서 출범한다.

광주 전남지역 불교계 인사 106명은 1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 창립식을 18일 오후 6시30분 광주 산수동 선덕사에서 갖기로 결의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불교연대 공동대표로 여연스님(대흥사 일지암 주지), 행법스님(광주 선덕사 주지)과 정진백(사회문화원 대표), 임동호(광주불교교육원 이사), 정의행(광주불교문화대학 교수)씨가 선출됐다.

불교연대는 앞으로 복지활동,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 생명인권 보호책,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 언론감시 및 언론의 공정성 실현,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연대, 불교에 대한 부당한 침체에 대해, 불교의 자정과 개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에 기획홍보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생명인권위원회, 언론감시위원회, 자연환경위원회, 참여불교위원회 등 6개 분과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 행정,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대안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교육프로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는 10일 선덕사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연대는 1차 행사로 이라크 난민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반전평화 콘서트,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갖는 열린 대화마당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창립대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한손으로 굽은 부처 어린이를 보듬고, 다른 손으로는 이라크 어린이를 쓰다듬는 형상의 대형 길게그림을 전시한다. 불화작가인 이상

호씨의 길게그림 전시와 함께 이라크 참상을 고발한 사진전, 범능 스님의 공연 등도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이해모 사무국장(부대기획 대표)은 "부처님의 정법에 바탕한 사회개혁을 위해 지역불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하게 됐다"며 "정의가 실현되는 정토사회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우리 것 우리 신도

### 수행·공부 함께하는 우리는 도반

장흥 대원정사 이금옥보살, 홍재성 거사

관광단지로 곳곳에 네온사인 요란한 장흥. 번잡스런 도심에 뒤로하고 한참을 내달리면 그곳에 대원정사가 있다. 아직 부처님 오신날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사찰 초입에 서부터 정갈하게 걸려있는 초파일 등이 대원정사 신도들의 부지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주지 해련 스님은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 앞장서며 쌀 한 톨 허투로 쓰는 법이 없는 '구두쇠' 스님이니, 신도들의 부지런함도 스님을 닮은 것이리라.

그날부터 계획에 없던 9일 기도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간 이 보살은 가게를 율에게 맡기고 3년 기도를 작성하고 절에 들어왔다. 힘든 공양간 일을 억척스럽게 해내면서도 기도와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 보살에게 차차 스님도 믿음을 주게 되었다. "절에 있으면 하루 2-3시간 밖에 못자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이 보살은 "부처님 가피로 지는 것 싫어하고 고집이 세면 제가 '마음 여는 공부'를 하고 있다"며 수줍게 웃었다.

대원정사 인연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홍재성(47, 법신) 거사. 그

아니나 다를까. 산 중턱에 반듯하게 자리

이 보살-힘든 공간간 일도 '마음 여는 공부'라며...

홍 거사- "도반들과 일생 함께하며 회향하도록 노력"



◁이금옥보살(오른쪽 첫번째)과 홍재성거사(왼쪽 첫번째)가대원사신도들과대화를 나누고있다.

잡은 대원정사에는 손에 아물고 신심 깊은 신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열성적인 신도로 이금옥(46, 원덕주) 공양주 보살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기독교 신자였던 이 보살이 대원정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 소개 덕분이다. 등산을 좋아해 산에 자주 가도 그 흔한 절에 발 한번 들이지 않았던 그지만, 이곳에 와서 해련 스님과 만난 3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

는 벌써 20년 째 절일을 하고 있다. 대원정사에서는 돌맹이 하나 나르는 일 부터 석축을 쌓고 연등을 다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홍 거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다. "피를 나는 사이보다 함께 밥을 흘린 대원정사 신도들이 더 살갑고 고맙다"는 홍 거사는 "이들과 일생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며 회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기자



주현의말

해련스님 대원정사 주지

친절, 진실로 가족분위기 만들어

니다. 특히 이금옥 보살과 홍재성 거사는 절살림을 보살피며 자신의 공부도 열심히 하는 신도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신도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원정사의 큰일꾼입니다.

20년 전 10평짜리 '비닐하우스 법당'으로 시작해, 최근 5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의 여법한 법당을 갖게 된 대원정사에는 신심 깊고 열성적인 신도들이 많습

## 제천 장락사지 삼국시대 창건

"'장(長)' 자명 기와 등 70여점 출토"



◁제천 장락사지의 현재모습

보물 459호 제천 장락동7층모전석탑 주변은 조선 태종 때 왕실의 안병과 복을 빌기 위해 자복사(資福寺)로 삼았던 장락사(長樂寺)가 있던 자리였으며, 장락사는 삼국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번지 일대, 속칭 장락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벌여온 충청대 박물관(관장 장준식)은 7일 "'장(長)' 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과 삼국-조선 중기에 이르는 기와·토기·자기 조각 등 70여 점의 출토됐다"며 "제천지역에서 삼국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확인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장 장준식 교수는 "출토유물로 볼 때 장락사는 삼국시대 말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법당이 이어져 왔으며 3차례에 걸쳐 중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역의 범위와 가람 배치, 변화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 발굴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 14년에 명찰로써 자복사를 대신하여 삼았는 데 제천에서는 장락사로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주변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사찰의 실제 규명이 어려웠다.

권형진 기자

## "운허 큰스님 유지 본받자"

### 광동학원, 존상 건립 제막식 거행

광동학원 운허큰스님 존상건립추진위원회는 8일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광동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설립자 운허 스님 존상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독립운동가이며 한글대장정 사업을 추진했던 운허 스님(1891~1980) 존상은 브론즈 재질로 좌대 높이가 250cm, 전신좌상 180cm이다.

이날 제막식에서 광동학원 이사장 임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운허 큰스님

은 남양주 지역에 처음으로 광동학교를 세웠다"며 "광동가족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유품전시회에는 운허 스님의 훈장증,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장, 발우, 가방, 현등사 사적 친필, 돌보기, 손저울, 회중시계, 벼루와 붓, 단주, 친필 현판, 벼루와 붓 등 총 21점이 전시됐다.

김원우기자

## 전남 산업평화 정착 기도법회

광주불교사무원연합회(회장 현지)는 7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양파크호텔에서 전남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지도자 기도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광주불교사무원 회장 현지스님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 한생명, 활동명상 강좌 개최

사단법인 한생명(이사장 도법)이 현대인들을 위해 활동명상 강좌를 개최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남원시 신내면 한생명 사회문화교육원에서 열리

는 활동명상 강좌에서는 쿤달리니 만다라 회전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이 소개된다. 문의 063/636-3776 남동우 기자

## 일, 나고야 화쟁사 건립기공식

일본 나고야 화쟁사 건립기공식이 6일 200여명의 양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쟁사는 1945년 관동군 수좌였던 가토다다시씨가 원산에서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일제치하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인 원혼을 달랠 사찰건립을 발원하면서 시작됐다. 가토다다시씨의 아들, 가토 미쓰오와 가토 마사오씨 형제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화쟁사 운영을 조계종에 의뢰해놓고 있다.<본지 351호 참조> 김원우기자

##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허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우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태행 파동명상-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파동명상-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대이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명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4월 2째주, 4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주 부터는 매주 저의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신기रो 히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덕산스님.

덕산스님(☎ 011-781-0587)은 저희 연구소를 평생연구반 1기생으로 2003년 2월 3일, 30년 동안 각종질환(심장병, 신장병,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어느 신도와 영적 상담에서 그 신도가 고통 받고있는 질병의 원인을 파동 명상요법으로 찾아낸 결과 그 속에서는 3명의 빙의령(어머니, 작은 어머니, 장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제령 천도되는 장면들을 보고 그 놀라운 현상들을 제령 천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너무 나빠 빙의령들을 제령 천도(많은 심령적 에너지가 소모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그 환자의

아내를 통하여 원격제령, 천도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는 덕산스님과 4명의 도반스님과 2명의 법사님이 참관하였고, 그 환자의 아내의 몸을 빌려 나타난 빙의령들이 그들이 왜 그 속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하소연하다가 결국에는 덕산스님의 놀라운 법력 앞에 제령 천도되는 장면들을 보고 그 놀라운 현상과 경험에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환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시간이 갈수록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